

순정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16, 24-25).

연중 제22주일

제 1 독서 : 예레 20, 7-9
제 2 독서 : 로마 12, 1-2
복음 : 마태 16, 21-27

강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오늘 복음은 아주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서로 연결되고 있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곧 다가올 주님의 수난에 대한 예고와 그에 대한 베드로의 민감한 반응을 전해주고 있고(마태 16, 21-23), 후반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당신을 따라야 할’ 제자들의 의무에 대한 그리스도의 엄한 권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24-27절).

이 이야기들은 원래 독립적인 별개의 이야기들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의 ‘고난’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편집상 한데 모아진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신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신비스런 감동과 기쁨을 주며 또한 그러한 기쁨에 젖어들 수 있게 한 반면, 그분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루시는” 수난당하는 종으로서 고백하는 것은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스승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함께 연루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하였다.



● 최 상 범 신부/군중 ●

“
형제들의 선의를 위해서
매일매일 바쳐야 하는
희생이야말로
현세가 요구하는 순교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권고는 관심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밖에 특히 그리스도와 이웃 형제들에게 두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열고 펼쳐나감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이 태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혀야 할 필요는 없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와 이웃 형제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고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선익이 아니라 오직 형제들의 선익을 구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락한 본능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매일매일 바쳐야 하는 희생이야말로 현세가 요구하는 순교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명

꽃이 아니면 잎이라도



신 광 연 (가브리엘)

지긋지긋하던 더위가 한풀 꺾인 듯 싶더니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가. 이른 아침 좁은 트랙 풀밭에 여치, 귀뚜라미 등 벌레 우는 소리가 요란하다. 저 벌레들은 밤새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을까. 이제껏 짝을 찾지 못하지는 않았을터인데... 짝짓거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청량한 가을을 부르짖는 소리같이 반갑고 당장 듣기에도 아름답다. 나에게도 텔레비전 요란한 차림으로 나와 옷차림보다 더 요란한 몸짓과 함께 소리 지르고 그렇고 그런 가수들의 노래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듣기 좋다.

그러기에 저들의 울음소리를 삶의 찬미가로 듣고 싶다. 무언 때문이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저 벌레들에게도 지금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 저렇게 밤부터 새벽까지 울어대겠지. 하찮은 벌레들도 찬미하는 삶!

하루살이에게도 개체의 삶은 나머지 우주와 같은 무게로 저울질될 수 있으리라. 삶이 끝날 때는 우주의 온갖 아름다움과 즐거움 그리고 피로움과 슬픔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터이니까.

주께서도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기 며칠 전 계셨마니 동산에서 삶에 미련을 보이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마르 14, 36).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그 거룩하기만한 말씀이 마음 놓고 주고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하나뿐인 삶을 주님의 제단에 바쳤던가! 때로는 ‘배교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건질 수 있었을 목숨을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자 구차하게 건질까 하지 않았다. 죽음은 차라리 쉬었으리. 죽음까지의 고통들을 얼마나 컸던가.

오히려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 오늘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행복에 감사하는 뜻에서도 옷깃을 여미고 거룩한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성찰해보자. 선열들의 도저한 믿음에 비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 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바르게 산다면 벌써 세상이 천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외인들의 비아냥거림이 옳은 말은 아닌가 하루하루 덧없는 삶을 이어 나가기 위해 세속과 때로는 불의와도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순교는 신앙의 꽃이라 했다.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래서 갖고 싶어도 지금은 아무도 그 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 꽃을 피울 잎이라도 되어 거룩한 제단에 바쳐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희생과 양심과 정의의 잎을.

● 순교는 가장 가까운 곳에 ●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나선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궁전으로, 숲으로, 무덤으로 지나긴 여행을 하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그 행복의 파랑새는 바로 집안에 있었다.

이 시대의 순교 역시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박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

〈경향잡지에서〉



성지순례의 모습 — 이대로 좋은가?

한국천주교회는 매년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하고 교 선열들의 신앙을 묵상하며 지내도록 권고한다. 이에 본당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지순례의 계획을 꾸미고 순교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성지순례의 모습이 진정 바람직한 순례인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우선에 관한 교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의견 ① 우리 교구 성지부터 가꾸자!

요즈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선조들의 깊은 순교정신을 이어받고 오늘의 교회를 살아가는데 큰 각성을 얻고 있는 심정으로 전국의 잘 가꾸어 놓은 성지를 찾아다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달 전부터 차를 예약하고 거의 10여 대의 긴 행렬로 새벽부터 순례를 떠났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미사 봉헌하고 이곳저곳 둘러보고, 십자성호를 수없이 긁고, 꼭 짜여진 시간 안에 끝내고 돌아오면, 그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버스 바닥이 꺼질 정도로 뛰어대며, 땀에 취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성지순례를 하고 다음날은 맥을 못추고 돌아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반성해보며, 정말로 먼곳에 많은 버스도 성지순례를 꼭 가야만 뜨거운 신앙체험하게 되는지 자문해보며 가슴과 눈을 안으로 들여보아야겠습니다.

이 고장 전라북도 전주 지역을 살펴봅시다. 많은 순교선조들이 진하고 끈끈하게 살다가 목숨바쳐 피로 물들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고장 순교자들의 피흘린 자리에서 오늘도 뜨거운 선혈이 우리를 반기는 듯합니다. 100여 년 전 이 고장 하늘 아래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피땀 흘리며,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죽어간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뼈가 숨쉬고 있는 이 성지를 가꾸지 못하고 버려두는 것이 옳은지요?

이 고장 순정이보다 더 큰 성지가 어디 있는지요? (6인종인 순교) 또 유향검 아오스딩의 가족이 살던 초남 마을이 나자렛과 비교해보면 큰 축복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난해 겨우 이분들이 살던 집터를 구입하여 하루 십자가만 덜렁 세워 놓았을 뿐, 미사 봉헌하고 일일 순례이라도 할 수 있는 눈, 비 가리울 조그마한 경당하나 마련 못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에서까지 순례객들이 무리지어 찾아오는 치명자산 지하 성당 건축도 시작만 해

놓고 중단하고 있으니, 자치교구민의 체면이 아니지요. 그동안의 수도도 많았지만 이제 새교구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더 합심하여 성숙한 신앙인답게 내 안에 나를 날마다 장사지내며, 내 안에도 순교성지 이루고 이 고장 성지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봉헌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전주교구 내 57개 본당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곳 성지순례 갈려면 평균 300명 잡고 1인당 1만원 경비 소요되는데 5년 동안 안 가고 계획 세워 보면 57개 본당×300명×10,000×5년=8억5천5백만원이 모아집니다. 각 본당신부님께서 시작만 하면 가능하리라 믿어 집니다. (강원모/순정이 본당)

전적(全的)으로 옳은 생각만은 아니라. 그리고 필자 역시 '타지역의 성지순례는 갈 필요없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성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지역의 성지순례만 생각하는 분위기를 시정해야겠다는 의견일 것이다.

의견 ② 성지순례인가 성지관광인가?

성지순례야말로 매우 뜻있는 본당 행사라 하겠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이 성지순례에 임하고 있는가? 연례 행사가 되다 보니까 성지를 구경하는 정도로 그저 치루는 행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성지순례인지 관광여행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양상은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 볼 일이다.

우리가 순례하는 성지는 대부분 순교지이다.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은 단순히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미신과 그릇된 사상 및 오류를 바로잡아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고통과 좌절을 승리로 이끄신 분들의 임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땅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의 순교자들처럼은 못해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렇다고 성지순례중 시종일관 숙연한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 아니다. 출발해서 성지를 돌아보고 미사를 드릴 때까지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세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 함께 점심을 나누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재미나는 놀이와 대화를 통해 서로 사귀었다면 하느님께서 매우 축복해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드높였으면 한다. (이종상/효자우전 본당)

의견 ③ 행사 위주의 순례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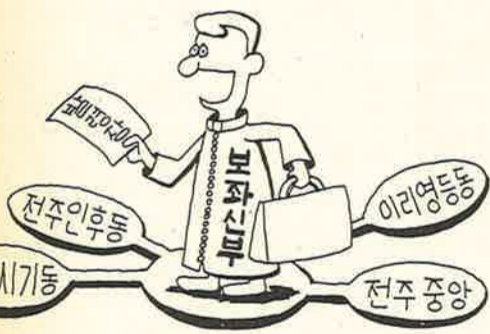
치명자산에 오르는 순례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들의 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 술 먹고 떠드는 일은 삼가해야겠다. 성지순례를 하러 왔는지, 스트레스 해소하러 왔는지 분간이 안될 정도다.
- 대형 순례단보다는 구역별, 단체별, 계층별로 소그룹 단위의 성지순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건한 순례라기 보다는 본당의 연례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하다.
- 여러 성지를 빠르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곳만을 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도와 묵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순례이어야 한다.
- 철저히 준비된 순례이어야 한다. 순례를 떠나기 전, 그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충분히 알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저 준비없이 떠나는 성지순례는 그냥 구경거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순례를 떠나기 몇일 전부터 피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그 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성지순례이어야 된다고 본다. 너무 준비없는 행사 위주의 순례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 결론

- 이상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성지순례가 성지관광이 되어서는 안된다.
 - 술, 난잡한 음악, 율동들을 삼가하자.
 2. 순례 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 피정, 강연회, 영화, 슬라이드, 유인물 등.
 3. 여러 곳을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한 곳을 지정, 그 성지가 기리는 순교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는 준비된 신심행위가 이루어져야겠다.
 4. 해외나 타지역의 성지순례에 쏟는 그 정성만큼 이 지역의 성지개발에 참여할 때 그 순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지역의 성지는 외면하고 다른 지역의 성지를 순례함은 그 성지순례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순정이 산책



'91년 1월 발령 예정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 철거를 위한 10만 서명 운동

* 한달 반 만에 6만 3천 5백여 명 서명 *

군산 임해 공단에 건설, 준공 검사까지 필한 '동양화학 T. D. I. 군산공장'이 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공장은 4천여 명의 사망자와 20여 만명의 중독 사태를 가져온 84년 인도 보팔시의 M. I. C. 화학공장 독가스보다도 더 유해한 포스젠 독가스가 생산되는 공장임이 밝혀졌다. 이에 여러 시민 단체들은 이 공장 건설에 정식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관의 비호를 받아가며 계속 공사를 진행, 그 완공을 본 것

이다. 그리고 군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준공 검사를 마친 것이다. 이에 천주교 전주교구 군·옥지구 사목협의회는 이 공장 철거를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벌인 바 한달 반 만에 6만 3천 4백 8십 8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서명 주민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또한 이 협의회는 이러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서 해결이 미온적일 때에는 또 다른 과감한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시민들의 중단없는 성원을 호소하는 '군·옥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일은 비단 군·옥지구의 일만이 아닌 '세상을 생명의 집'으로 보존해야 하는 모든 선의(善意)의 사람들의 뭉친 만큼 250만 전북인은 물론 모든 믿는 이들의 문 제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로유동 **참스** (수계전로 보령) **특약점**

서울·鮮京커텐, 스완카페트 실키브라인드·혼수예품

사비커텐

정길 (알베르도) 김강 (엘리사벳) 중앙동가구점길 (에이스침대안) ☎82-2226.86-5611

삼익피아노 **코아트약점** (코아백화점 3층) 김동욱 (마태오) 채순남 (소화터러시) ☎80-1309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범디또 ☎84-2628

사진재료·비디오 촬영 **유일칼라사진관** ☎83-1949.84-9740 전통성당 앞 유영문 (가에따노)

중앙상가 꽃도매시장 축하바구니·조의바구니 생화 신부부케 분재 유제형 (바오로) 김영근 (크리스티나) ☎251-9600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기정 (요섭) 효자성당 옆 ☎82-6492

맛 좋고 공해 없는! **원평꿀배** 8kg 1박스 { 大: 10,000원 中: 8,000원 小: 6,000원 } 주문처: (0658) 43-0880 원평성당 최용준 (안도니오) 신부 (배달도 가능)

우리·도자기 특수 열처리인쇄

- 각종성화(그림점식, 커피잔, 밥집, 붓통 등)
- 각심신단체 레시오, 꾸리아 등 및 가정제대용 성화선통백자화병
- 본당행사기념품, 결혼, 회갑, 답례품 및 관축품 일체

정동기획 김정렬 (베네딕도) 이강래 (율리안나) TEL. 72-3211 FAX. 291-8990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재천 (안드레아) 정봉교 (마카렐라)

호지동 우진아파트 앞 ☎223-0297~8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



내 마음을 주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요심이 (891) 김병오

“야훼께서 배부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라”(시편 116, 12-13).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은 법!’ 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내놓고 싶어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에게 그 죄악은 오히려 크나큰 은총이 된다. “참 수녀님도! 남들이 알면 웃어요!” 하시며 인터뷰를 사양하시는 박대규(바르나바) 회장님!

6대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유아영세를 받고 성장했지만 20년의 군생활로 젖어진 괴팍한 성격, 명령식 태도, 완고한 자세 그리고 술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의 삶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웃과 화합하며 살기가 너무도 힘이 들



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 불명이 되어 입원하게 되었다. 바울로가 다마스쿠스에서 빛에 의해 땅에서 떨어졌듯이 그도 자신의 말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용서를 빌 뿐이었다. 부인의 병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퇴원했다.

이때부터 그는 치명자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차츰 변화되어 갔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을 잊고 살아가는 기적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

성지안내 자원봉사자 박 대 규 (바르나바) / 호성동 사목회장

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부인의 병도 차츰 나아지게 되었고 지금은 불편없이 걸어나고 있다. 그의 삶은 전적인 회심의 삶이었다. 교만과 오만, 고집스러움으로 상처준 모든 것들을 통회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 영겨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형제적 사랑이 움터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성지순례 안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86년 4월 10일부터였다. 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물려오는 순례객들의 길잡이로 성지를 안내하다 보니 자연 성지에 대한 사랑도 커졌다. 치명자산 성지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하다. 많은 돈을 들여 해외 성지순례는 하면서 우리 성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교우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그러나 이런 저런 잡생각, 흐트러지는 마음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체 앞에서만 가능하다. 성체조배를 하게 되었고, 특히 겸손과 은유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었기에’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모든 것-죄악까지도-이 은총이었음을 깨달은 그의 삶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전동 성당 ⅢⅢⅢ 전주 지역 가톨릭의 현주소

전주 전동 성당은 역사성으로 갖는 지역 가톨릭의 산실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당 자체의 건축미가 가지는 우아하고 장엄함 등으로 전주 지역 가톨릭의 현주소를 얘기해주고 있는 곳이다.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것과 그곳이 옛날 왕조시대 교우들의 치명터였단가 하는 여러 얘기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두 번 고개를 수긏하게 하는 곳이 전동 성당이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이며 교우들 또한 더욱 공고한 신심을 이루게 하는 매력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1889년 사베리오 윤 신부가 땅을 매입, 1891년 이곳으로 옮겨와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전동 교회가 탄생했다.

1894년 동학란이 일어 신부들이 잠시 피해 있다가 그 이듬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본당 설립의 논의가 시작된다.

윤 신부는 1908년 중현 성당



설계자 빅토르 박 신부에게 설계를 받아 중국인에게 청부를 주어 공사에 착수했다.

모든 교우들이 힘들여 공사에 매달렸으나 횡령 등 여러 사건이 터져 3년간 공사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윤 신부의 본국 친우들에의 호소, 본당 교우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7년 만인 1914년 로마네스크식의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15년 이곳에서 선종한 윤 신부 후임으로 부임한 말셀로 구 신부는 성당 내부와 외부의 미화를 끝냈고 대구 안 주교의 집전으로 성당이 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를 주보로 성대히 축성되었다. 전동 성당은 대지 4천평 본당 건물 1백89평 부속 건물 1백60

평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난 88년 불의의 화재로 본당 내부 일부가 타는 변을 겪기도 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고개를 수긏하게 해준다.



성전 축성을 앞두고 —
비품 마련을 위한 은인을 구합니다.
상자, 제향 등 많은 비품들이 부족합니다.
축성식: 1990. 9. 8 (토) 오후 3시
연락처: 서신동 천주교회
☎ 4-2214

교우들에 특별 봉사합니다
삼성전자로타리 대리점
최정호(로별도)
박은순(크리스티나)
대리점 251-9066~67
자택 74-1226
전주시 덕진구 전북동 360-9(빙그레회관내)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속녀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
김문식(베드로)
☎ 82-3118
봉남로 232, 송악로 사거리

김종범 소아과
• 소아과
• 내과
• 피부과
• 비뇨기과
김종범(루가)
전임화(안젤라)
☎ 42-0667
김제시 요촌동(간이터미널 앞)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2-8653

개인 지도식 교육
유치부 한글 터득 및 속셈 숫자 지도
관영재속셈학원
장재식(베드로)
원숙영(가티리나)
우이동 우신APT 입구 백미역2층
☎ 76-1300

맥코이이온정수기
국내·외 최고판매의 (보간사회부허가210호)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
(주) 모리아 크리스탈 전라사업본부
대표 서동주(스테파노)
경원동 전북대 치과대학 사거리
☎ (0652) 86-1077, 82-8038
교우상담원영, 남·내사원계속모집, 수질검사 무료

사무실임대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2층
평수: 219호 6평, 221호 12평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센터 사무실로 연락바람.
연락처: 85-0041~3

사 무 실 임 대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2층
평수: 219호 6평, 221호 12평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센터 사무실로 연락바람.
연락처: 85-0041~3

교구 소식

※ 축! 서신동 천주교회 축성식: 9월 8일(토) 오후 3시

- 축! 견진: 창인동 성당 9월 9일 오전 10시. 송천동 성당 9월 12일 오후 8시.
 - 사제 평의회: 9월 11일 오전 10시.
 - 교구 사전동우회 촬영: 9월 9일 소록도 당일 가톨릭센터에서 출발 회비-1만원(45명)
 - 초등부 교리교사학교: 9월 16일 오전 9시 가톨릭센터 강당.
 - 전주교구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9월 23일 오후 1시 전주 성심여고 강당 대상-각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
 -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9월 3일(월) 오전 10시30분 전주교구청 1층 회의실.
 -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9월 6일(목) 덕진 성당 10시-4시, 미사도구-묵주, 도시락 지참.
 - 각 수도회 성모모임**
 - 살레시오여자수도회: 오늘 오후 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 33-2578.
 - 사랑의 씨튼수녀회: 오늘 오후 2시 동산동 성당 수녀원(0652) 77-4212.
 - 성령선교수녀회: 9월 9일 오후 2시 본원(02) 764-4750.
 - 성모 성심수도회: 9월 9일 10시-16시 서울본원 (02) 278-7492.
 -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9월 4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후관 4층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
- ※ 축! 명명: 4일(성모이세) 이상섭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편리한 일회용품 환경오염의 주범 —
최근 또다른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종이 수건은 요즘 각 가정 및 직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편리한 물품 중 하나다. 편리함도 좋지만 인류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제4기 수화반모집
※수화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낮반: 월·금요일 2~3시
대상-주부, 일반인
밤반: 월·금요일 7~8시
대상-학생, 직장인
개강: 9월 3일 ☎ 84-5290
장소: 가톨릭센터 사회복지회 회의실

양재·한복·홍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 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견안드레아)
동부시장 앞·민정당사 앞
☎ 86-2715

해 외 여 행
(성지순례·신혼여행)
고려관광
이종길(요한)
☎ 87-9797
(기린로 병무청 사거리)

「겨레의 노래」 공연!
“함께 오셔서 함께 불러주십시오”

때: 1990. 9. 15 (3시, 7시)
곳: 전주실내체육관
한겨레신문사
겨레의노래사업단
대표: 송건호
문의처: 전주이데아 ☎ 87-9888

백두산에서의 미사

문치상 / 금암 본당

1990년 8월 5일. 내 땅을 놔두고 남의 땅 중국을 향해 온 백두산. 천지를 한눈에 시리도록 굽어 올려진 통일기원미사는 사과 평화를 저 건너 북한땅에 침새없이 전하였다. 1년 중 2백60일은 일기불순으로 아예 구경조차 할 수 없고 나날이 날짜에도 바람과 구름, 안와 비 때문에 쉽게 눈에 넣을 수 없다는 백두산 천지. 그러나 통일기원미사가 올려진 날은 구름 한점없는 맑고 밝은 가을의 날씨였다. 김반석·김영일 신부의 집전으로 올려진 이날 미사에 일행 22명 가운데 신자는 4명(강동열, 정원, 황보용남, 문치상)에 불과했

지만 모두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했고 각국에서 찾아온 관광객 1백여 명도 참신하고 경건한 우리의 잔치를 지켜봤다. "분명 오늘은 은총을 받은 날이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었는데..." 천지를 매일 오르내리는 짙차 기사들의 수근대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영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 모두는 흐르는 눈물을 마음에 담으면



서 '바로 저기, 저 산 넘어 우리의 형제를 위한 기도'에 온 정성을 다했다. 고회를 넘기신 두 신부님은 최초의 천지미사를 드린 후 오랫동안 북한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강하고 진하게 묵상하며 기원하는 모습은 숙연하기만 했다.

시청소감문

아침 드라마 아내의 뜰

(이정숙 / 호성동 본당)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드라마를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KBS 2TV에서 방영하는 아침 드라마 '아내의 뜰'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습관적으로 시청하고 있다. 제목 그대로 한 가정의 아내가 겪는 일상생활의 삶들을 극화한 것인데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공감이가는 내용이 많다. 출판사를 경영하는 독선적이고 책임감없는 이기적인 남편과 착하지만 자기 할 일들을 제대로 해하지 못하는 시대 식구들 속에서 정진적 물질적으로 기둥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혼자 떠맡아

고뇌하며 힘들어 하는 주인공 시내는 요가교실을 경영하는 개방적이고 현대적 여성인 반면 어느 때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자기 존재를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타인의 생활에 자신을 희생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전통의 현모양처의 표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보편적인 한국 남성들이 그러하듯이 이 드라마에서의 남편도 능력있고 빈틈없는 아내를 격려와 칭찬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아내한테 열등감을 느끼며 남자라는 권위의식 하나로 아내의 감정 따위는 묵살하고 무조건적

알고봅시다

엄마들을 위한 영화

'초대받은 사람들' 상영
일시: 1990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대상: 엄마들. 회비: 1,000원
우리나라 선조들께서 지켜온 신앙, 그분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그린 신앙체험기.
순교의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그분의 돌보심으로 신앙을 지켜나간 자랑스런 선조들의 삶을, 깊은 감동과 함께 국내 유명배우들이 여윌습니다.

순교자 성월에 권하는 책 *어둠을 헤친 사람들*

병인년 순교자 24위의 행적이 여실히 펼쳐진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으로 향하는 나그네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참혹한 형벌도 달게 받으며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깨끗하게 보여준다.
이병영 / 최석우 감수
성바오로출판사 2,600원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성시간: 6일 저녁7시30분(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반회장 회의: 7일, 전10시30분(예비자 현황보고). 병자봉성체: 6일(병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모임: ① 올드레이-오늘 저녁8시. ② 성심회·성가대 월례회-어머니 미사 후. ③ 사목회분과 모임: 7일, 저녁8시. 주일학교 초등부 교리개학: 오늘 오후2시. 금주 청소: 인후 3,4반. 차주청소: 인후(5,6,7반). '축' 결혼: 9일, 12시 신랑-박귀권(요바), 신부-이금옥. 교무금 납부독촉: 월별 헌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905,880원 □ 교무금: 395,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 군

9월은 순교자 성월.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올드레이: 4일 저녁미사 후. 밀알회: 5일 오후6:30. 4. 성체강복: 6일 저녁미사 후. 제대회: 6일 오전10:30. 6. 여성분과회: 8일 오전10시.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7일 오전11:30. 꾸리아: 9일 오후2시. 9. 청년회: 9일 저녁미사 후. 10. 숲정이원 회고: 밀알회에서 본당 도서실 운영을 위해 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책이나 도서 구입 대금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죄인의 약탈Pr 단원들은 병원 방문에 쓸 잡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① 송철수 ② 최정희 봉헌-송철수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정현자. □ 지난주 봉헌금: 508,850원 □ 교무금: 899,8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 석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자 성월기도문 기도서P 22. 꾸리아: 공식미사 후. 봉성체: 5일(수) 오전. 성경 읽기: 이사야장-10장.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금주 전례: 해설-김경재 독서① 유순천 ② 이석남 봉헌-최상옥, 최상운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 여정진 ② 김금자 봉헌-황옥섭, 한동산 씨 부부. 미사시간 변경: 월 오전5:30. □ 지난주 봉헌금: 207,54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 응

오늘은 연중제22주일!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회의: ① 사목회-9월5일(수) 저녁미사 후. ② 9월4일(화) 오전10시30분. ③ 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④ 프란치스코 3회-다음주일 오후2시.

2. **알림**: ① 가정방문-9월5일(수) 12반~13반, 9월12일(수) 14반~15반. ② 청년회원개편-회장 최치환(안또니오), 부회장 소경수(아네스), 총무 이철현(안드레아), 서기 강경희(세실리아) 수고하시겠습니다. ③ 예비자를 인도합니다-교리시간 매 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 주일 오전9시(학생반). ④ 교무금 미신청자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⑤ 성당물건을 내 물건을 철저히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584,260원 □ 교무금: 395,000원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 환

※ 순교자 성월 이어바라 주님사랑 실천합니다.
1. 구역장·반장모임: 공식미사 후.
2. 꽃봉헌회 모임: 9월7일(금) 오후3시, 준비물-기도서, 성서, 마로코복을 얹어오기.
3. 9월20일 영세식을 위해 통신교리 이수자는 신청바랍니다.
4. 성지순례 안내: 9월23일 회비-6,000원 장소-해미성지(9월 16일까지 신청바랍니다).
5. 어린이 미사: 토요일 오후4시.
6. 청소년사: 주공APT 서편 4반~6반. □ 지난주 봉헌금: 399,880원 □ 교무금: 542,000원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 총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 수

※ 성전보수헌금 바랍. * 예비자집교식-오늘 공식미사 후.
1. 재속극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2. 성체강복 및 성체 조배: 6일(목) 오전10시~저녁미사 전. 3. 병자봉성체: 7일(금).
4. 자모회 총회미사: 8일(토) 오전10시 미사.
5. 가정방문: 4일~5일(서교동 1,2반). 6. 영세대상자 집중교리: 10일~14일 저녁미사 후. * 영세식-15일(토) 오후4시.
7. 나라를 위한 기도·미사-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 미사.
8. 성가절회: 9월3일(월) 오전11시.
* 금주 보수비 헌금액: 486,000원 * 현재모금 총액: 152,036,020원
* 금주 보수비 신입액: 없음. * 현재신입 총액: 219,731,399원 □ 지난주 봉헌금: 1,244,73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 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 환

※ 전신자 성지순례: 16일(일) 장소-미리내 접수-오늘까지.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개인 또는 단체별), 참가비-성인 5,000원 중·고생 2,000원 국교생은 무료.
1. 구역형제회: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5일(수) 오전10시30분. 3. 성심회: 5일(수) 오후2시. 4. 구역형제회 일정: 5일(수) 오후2시-2나반, 2시30분-2다반, 3시-14가, 나반, 4시-26반. 6일(목) 오전10시-5반, 10시30분-7반, 11시-9,11반, 오후2시-4반, 2시30분-6나반, 오후8시-1반, 8시30분-27,28반, 7일(금) 오후8시-3반, 8시30분-10,11반, 9시-13반. 5.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금주 전례**: 박종구 복사-지동호, 이정문 봉헌-정순태 부부 차주 전례: 강상근 복사-박병환, 강수중 봉헌-조 선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21,230원 □ 교무금: 622,000원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 근

※ 순교자 성월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중고생 미사: 매 주 토요일 오후8시(복전미사), 중고생-매 주 토요일 오후6시30분.
4. 금주 전례: 해설-장병순 독서·봉헌-김완철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김종호 부부. * 본당 전화번호 변경안내: 사제관 221-9843, 사무실-221-9842.

본당 223-3822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증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4 보좌신부 김태 환
* 본당 전화번호 변경: 뒷쪽 참조. 사목회장 황수 석

1. 올드레이 모임: 오늘 11시 미사 후.
2. 구역봉사자 모임: 9월5일 오전10시30분.
3. 유아세례: 9월9일 오후5시. 4. 까리따사회: 9월7일 오후3시.
5. 의명 10만원 특별헌금 감사합니다.
6. 예비자 부활반 모집 직장반-수요일 오후7시미사 후 교리실, 주부반-일요일 오전10시 후 교육관, 학생반-토요일 오후5시미사 후 교리실, 일반반-일요일 오전9시30분 교육관.
7. 초·중·고 교리시작: 9월8일부터. 8. 청소년: 쌍용주택, 삼천주택, 남양송정. 9. 성서교실: 9월5일부터 개강 오후2시, 7시30분 10. 안나회: 9월 11시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958,400원 □ 교무금: 1,429,000원 □ 공사위원 특별헌금: 239,40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 두

1. 예비자 환영식: 공식미사 후. 2. 성지순례: 배론성지 9월2일 까지 선착순 420명.
3. 사목회: 저녁미사 후. 4. 반석회, 요셉회: 공식미사 후. 5. 새벽회: 9시, 학생미사 후.
6. 9월9일 주일미사는 새벽6시만 있음.
7. 여성분과회: 7(금) 어머니 미사 후.
8. 안심공소미사: 7(금) 후8시. 9. 가정방문: 4(화) 한성, 5(수) 남양연립. 10. 제대회 첫모임: 6(목) 10시미사 후.
11. ① 9월중 철야 기도회-7(금) 후10:30-8(토) 4:30까지 '파티마의 기적' 영화상영 많은 참석 바랍니다. ② 지속적인 성체 조배-매 주 목10시~금10시까지 반회장 인솔아래 전신자 한시간씩 조배하기 바랍니다. 금주 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 정창구 ② 김옥남 기도① 김근수 ② 최명자 □ 2차헌금: 382,560원 □ 지난주 봉헌금: 559,960원 □ 지난주 교무금: 629,000원